

#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안성현\*\* · 최광훈\*\*\*

##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사내용
- III. 축조시기 및 특징
- IV. 축성배경
- V. 맺음말

## 국문요약

이 글은 연천 대전리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서울·경기지역 석축산성의 축조수법과 유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전리산성은 6세기 중·후반경에 축조되었으며, 신라 복속 이후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선은 한탄강·임진강을 잇는 선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 지역 산성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들은 대부분 6세기 중반에서 후반경에 해당하므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시기 유물은 각 산성마다 소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령지의 안정적인 지배보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호로그루 내부 집수시설-지하건물지-내 출토 기와편과 무등리 2보루의 성벽 외부 목탄층을 분석한 결과 국경선을 따라 소규모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점유 형태 역시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대전리산성, 신라, 고구려, 신라 서북 경계, 임진강, 한탄강, 국경선, 거점성, 호로그루, 무등리 2보루

\* 이 글은 2016년 『연천 대전리산성Ⅱ』의 고찰을 대폭 수정·보완하였으며, 제목에 사용한 ‘성격’은 산성의 축조시기와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밝혀둔다.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1부장

## I. 머리말

대전리산성은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10번지·장탄리 산 248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성재산의 남서쪽 봉우리를 두르는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전통적인 분류 안에 따르면 전형적인 사모봉형에 해당한다. 산성의 서쪽으로 연천방면에서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의정부-남양주-서울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와 남동 쪽으로는 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 북쪽에 입지할 뿐 아니라 한탄강 남안에 면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전리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자는 대전리산성을 고구려 유적으로 분류<sup>1)</sup> 한 후 양주 대모산성·전곡리 토성과 함께 매소성일 가능성도 제시하였다.<sup>2)</sup> 이후 조사에서는 지표조사에서 채집된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을 근거로 대전리산성을 고구려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인 근거가 나오기 전에는 신라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매소성으로 볼 고고학적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sup>3)</sup>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조사는 대전리산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산성의 축조 주체에 대해서 고구려와 신라 및 통일신라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대전리산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대전리산성에 대해 2차례의 걸쳐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sup>4)</sup> 그 결과 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 축성되었으며, 일정기간 국경성의 기능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와 축성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강 하류지역인 파주와 영동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데 비해<sup>5)</sup> 연천지역은 불분명한 편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1)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pp. 56~57.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경기도 고구려 유적-종합정비 기본 계획-』, 2006, 83~90쪽.  
2)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83~90쪽.  
3)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고구려성곽(3개소)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2010.  
4) 경기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시·발굴조사 보고서-』, 2015.  
고려문화재연구원·연천군, 『연천 대전리산성 II』, 2016.  
5) 김성태·허미형,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畿甸考古』제5호, 2005, 252~253쪽.  
李盛周·姜善旭,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科程』, 『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461~484쪽.



도 1. 대전리산성 및 주변 관방유적 분포도(1:25,000)

신라의 북진기 서북경계에 대해서 임진강 및 한탄강 선<sup>6)</sup>과 양주 대모산성 일원으로 나누어진다.<sup>7)</sup> 후자는 임진강과 한강 사이의 공간을 점이지대로 보고 있는 듯하다.<sup>8)</sup> 그 이유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설에 의거하거나, 아니면 점이지대였으나 7세기 초 낭비성 전투 이후 신라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헌기록에 맞추어 고고학 자료를 해석하고 있다. 물론 필자도 위의 견해와 유사한 생각이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전자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복속한 이후 국경선은 임진강과 한강유역으로 보고 있으나 이 지역 산성들의 축조시기 역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sup>9)</sup>

따라서 한탄강 남안에 축조된 대전리산성의 정확한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면 특정시기 신라의 서쪽 국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대전리산성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축조수법과 내부 시설, 출토유물을 근거로 산성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며, 문헌기록과의 비교 검토는 별도의 논고에서 다룰 것임을 밝혀둔다.

## II. 조사내용

대전리산성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의 잔존 상태와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sup>10)</sup>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조사는 2013년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성벽 3개소-시굴 : 남서쪽 성우, 발굴 : 남동벽·남벽 중앙-와 성 내부인 동쪽 평탄지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성벽과 1·2차 보축기단, 보축성벽,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2차 조사는 2014년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초축성벽과 1·2차 기단보축, 수축성벽, 보축성벽

6)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郷土서울』第73號, 2009, 109~111쪽.

7) 朴省炫,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5쪽.

박성현, 「양주 대모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34~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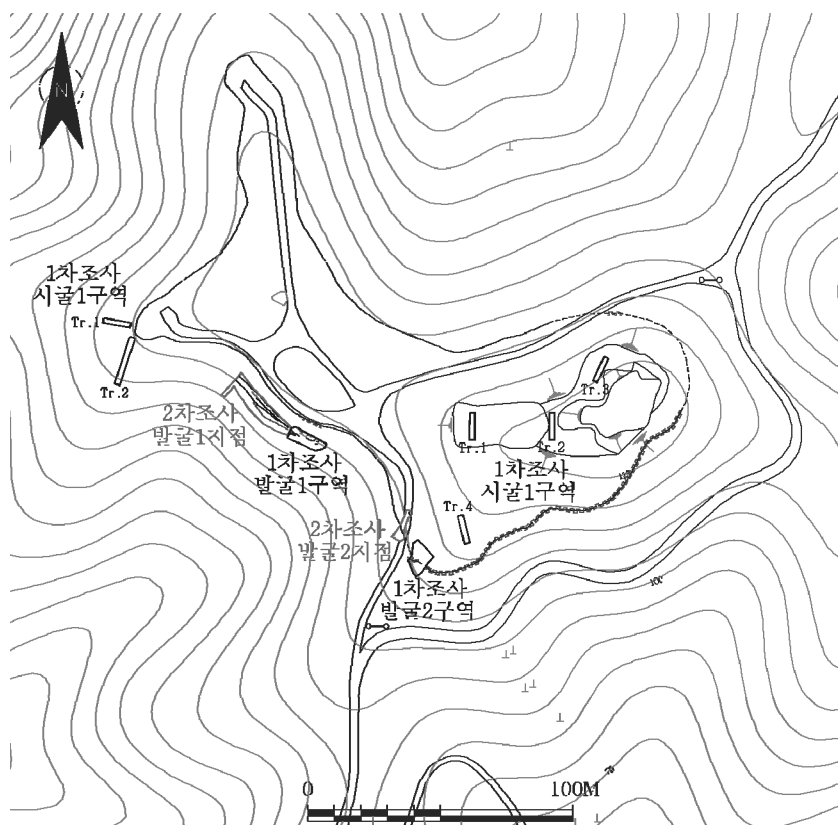
8)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발해연구』11집, 고구려발해학회, 2001, 27~45쪽.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41집, 단국사학회, 2009, 27~46쪽.

9) 홍보식, 「考古資料로 본 新羅의 漢江流域 支配 方式」, 『百濟研究』第50輯, 2008, 122~134쪽.

10) 1·2차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유구의 해석은 차이를 보이지만 북진기 신라산성으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전리산성을 신라산성이라는 견지에서 기술한다.

등이 순차적으로 수 개축되었음을 밝혔다. 이장에서는 산성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기 이전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적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도 2. 1·2차 조사 현황도

## 1. 성벽

### 1) 초축성벽

초축성벽은 1·2차 조사지역 전역에서 잔존하며, 단면 형태는 1차 조사 발굴 2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벽은 원지형을 굴착한 후 고도가 낮은 외벽부터 쌓아 올라가다 비슷한 높이부터 내·외벽을 동시에 축조하였다. 그리고 굴착면과 내벽 사이의 공간은 사질점토를 다져서 회곽도를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내벽 대부분이 땅속에 묻히므로 전형적인 편축식 성벽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의 기저부는 조사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① 2차 조사 발굴1지점(남서벽)은 성벽의 진행방향으로 계단상으로 굴착하였으며, 굴착부에 요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분적인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저부는 흙으로 다진 것과 암반위에 성벽을 쌓은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분포상에서 정형성을 찾을 수 없다. ② 2차 조사 발굴2지점(남동벽)은 성벽 진행방향으로 2차 조사 발굴1지점과 동일하게 계단상으로, 성벽과 직교하는 방향은 'L'자상으로 굴착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③ 1차 조사 발굴2구역의 경우 성벽과 직교하는 방향의 사면을 계단상으로 굴착하였다.

외벽은 장방형 및 부정형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 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고식의 축조수법으로 볼 수 있다. 면석은 편마암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sup>11)</sup>



도 3. 1·2차 조사 초축성벽

## 2) 기단보축

기단보축<sup>12)</sup>은 1·2차 조사지역 내 거의 전 구간에서 확인되지만 축조수법은

11) 성벽은 지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1차 조사 발굴2구역은 성내부와 외부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므로 다른 지역보다 성벽의 높이는 낮은 편이지만 내벽의 대부분이 지하에 묻히는 것은 다른 부분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전리산성의 성벽을 편축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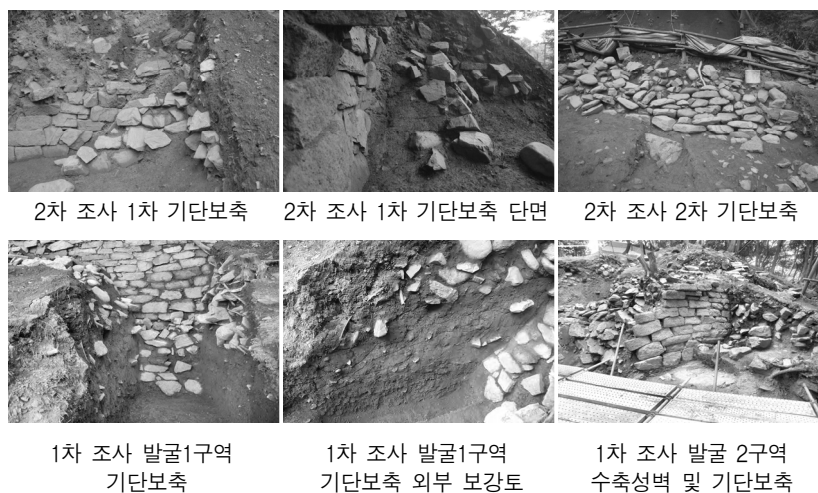
12) 基壇補築은 '外壁基壇補築', '基壇外壁補築', '外壁補强構造物', '外壁基底部補强石築', '補築城壁(基壇補築城壁)'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외벽 하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성벽에 덧대어 설치한 구조물을 뜻한다. 기단보축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비판이 이루어진 예도 있으며, 그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용어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시설에 대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어졌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基壇補築'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기단보축은 명활산성, 대모산성, 아차산성, 파주 덕진산성 등에

차이를 보이며, 명칭 역시 다양하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1차 조사 발굴1구역에서는 1·2차 기단보축이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보고자가 지칭한 2차 기단보축은 붕괴된 성석이나 보축성벽의 적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Pit 2의 1차 보축은 20~30cm 정도의 편마암계 부정형할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적심은 흙으로 다졌다. 보축의 단면형태는 삼각형이고, 외부는 점토를 다져서 보강하였다.

또한 1차 조사 발굴2구역 Pit에서는 수축성벽이 축조되면서 유실되었다. 다만 동쪽 단면에서 기단보축이 확인되었으나 1차 조사 발굴1구역에 비해 소형이라는 점에서 각 지점마다 규모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2차 발굴조사 1지점의 기단보축은 기본적으로 1차 조사 발굴 1구역의 1차 기단보축과 유사하며, 2지점은 내부 다짐토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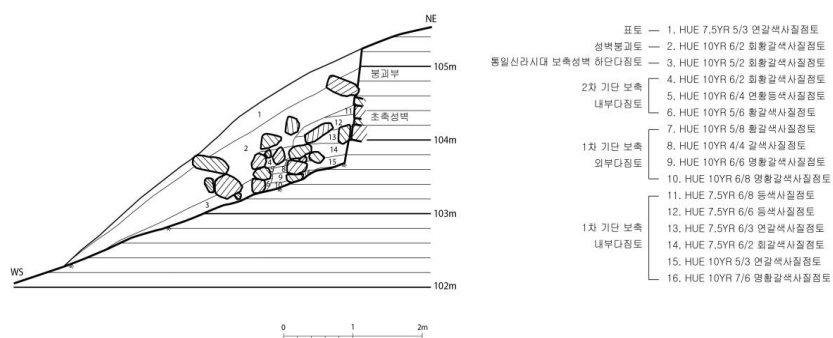


도 4. 1·2차 조사 기단보축

따라서 1차 기단보축은 조사가 이루어진 외벽 기저부 전면에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규모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벽은 보축이 덮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축조수법이 차이가 분명하므로 성

서 확인되는 성벽의 1/3내지 1/2 이상까지 쌓아 성벽을 보강하는 구조물에 대응되는 성벽의 기저부 보강 및 유수 방지를 위해 설치된 소형의 석축 구조물을 의미한다.(안성현, 『慶南地域 古代 石築山城 築造技法에 관한 연구-基壇補築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제11집, 한국성곽학회, 2007, 135쪽.)

벽과 보축은 동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기단보축의 면석부터 천석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대전리산성의 시기적 경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차 보축은 선축된 1차 기단보축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지형적으로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 5. 2차 조사 발굴1지점 성벽 외부 토층도

### 3) 수축성벽

수축성벽은 2차 조사 발굴1지점과 1차 조사 발굴1구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파악된다. 첫째, 수축성벽은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전환되는 곳에 위치한다. 둘째, 성벽 축조에 사용한 석재와 축조수법이 동일하다. 셋째, 붕괴된 초축 성벽 주변의 기저부까지 기단보축을 제거한 후 수축 성벽을 쌓았으므로 입면 형태는 'U'자상을 이룬다.

수축성벽은 초축성벽의 기저부와 1·2차 기단보축을 굴착한 후 쌓았으며,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수축성벽과 축조수법이나 석재가 동일하므로 초축성벽과는 상당한 시간차를 둘 수밖에 없는데 반해 보축성벽과는 시차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축성벽 사이에는 동일한 축조수법의 성벽이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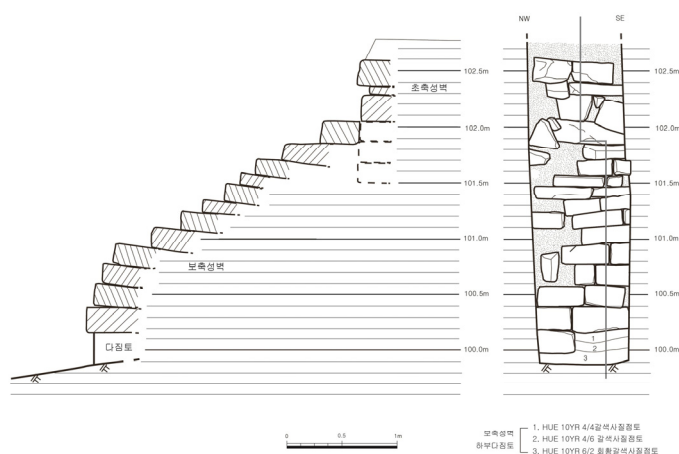
2차 조사 수축성벽(남서벽) 1차 조사 수축성벽(남동벽) 1차 조사 수축성벽 세부

도 6. 1·2차 조사 수축성벽

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벽 전 구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붕괴된 부분을 보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보축성벽

보축성벽은 1차와 2차 조사결과 다른 구조물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발굴2구역에서 보축성벽으로 보고한 석축은 외벽에서 80~120cm정도 이격된 지점에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고, 외벽은 수직에 가깝다. 면석은 초축성벽에 사용된 석재와 동일하며, 석축 외부에는 할석과 천석으로 보강하였다. 평면 형태로 보아 치로 추정될 뿐이다.<sup>13)</sup>



도 7. 2차 조사 보축성벽 입·단면

2차 조사 발굴1지점의 동쪽 가장자리는 유실되었으나 잔존부의 양상으로 보아 산성 전역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축성벽은 2차 기단보축의 기저부는 보강토를 정지하거나 아니면 풍화암반 위에 암갈색사질점토를 10~20cm내외로 다져서 조성하였다. 축소수법은 30~70×10~25cm내외의 (장)방형의 현무암계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다. 외벽의 경우 최하 단에서 4단까지 3~5cm정도 들여쌓았으나 그 상부는 10~15cm가량으로 급격하게 넓어질 뿐 아니라 기울기도 완만해진다. 외벽 기저부는 점토로 보강하였으나 후대의 훼손으로 인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sup>13)</sup> 1차 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보축성벽 외부를 보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강부의 외벽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강석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 든다. 이 글에서는 1차 보고서의 내용을 따르지만 파주 덕진산성의 북서치와 남서치의 예(중부고고학연구소, 『파주 덕진산성』, 2014.)로 보아 보축성벽의 직십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차 조사 보축성벽



2차 조사 보축성벽 기저부



1차 조사 보축성벽



1차 조사 보축성벽 입면



파주 덕진산성 남서치



파주 덕진산성 남서치 1

도 8. 1·2차 조사 보축성벽 및 파주 덕진산성 치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사된 성벽과 부속시설은 초축성벽, 1·2차 기단보축, 추정치, 수축성벽, 보축성벽 등으로 나누어지며, 축조순서는 초축성벽·1차 기단보축→2차 기단보축·1차 조사 발굴2구역 추정치<sup>14)</sup>→수축성벽→보축성벽 순임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기단보축은 전 구간에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2차 기단보축은 지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추정치 역시 방어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성벽 보강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돌출시켜 치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축성벽은 1·2차 기단보축을 완전히 절개한 후 설치되었으므로 초축성벽과는 상당한 시간차이가 있었으며,

14) 추정 치와 2차 기단보축이 1차 기단보축보다 후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들 간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용된 석재만을 한정할 때 추정치가 선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성벽이 붕괴된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보수작업이 이루어졌을 알 수 있다.

## 2. 내부시설

산성의 내부는 군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훼손이 심해 지역에 따라 유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시설은 1차 조사 시굴2구역인 남동쪽 평탄지에 4개소의 트렌치에서 건물지 기반으로 추정되는 석렬 4기를 비롯해 추정 적심 및 성격을 파악하기 힘든 석축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들은 표토 아래에 위치하는데, 배치 상에서 정형성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유물 역시 삼국시대에서 통일 및 고려시대의 토기와 도기, 기와편 등이 동일층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성의 초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축조시기 및 특징

성곽의 초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초축 이후 필요에 따라 수개축이 이루어짐으로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성벽은 여러 시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폐성 당시의 유구가 잔존한다. 또한 우리나라 성곽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동일 지역 내에 지속적으로 축조되므로 시설물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15)</sup>

특히 서울·경기지역 성곽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부분 성벽의 축조수법이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축조시기와 국가를 파악한 후 영토 확장 및 지방지배, 국경선과 교통로 등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왔으며, 서울·경기지역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된 듯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정 정도의 연구 성과 -이들테면 성곽의 축조수법이나 시기적인 특징, 관방체제, 교통로, 개별성곽의 성격- 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축조시기와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리산성의 입지와 축조수법, 유물의 출토맥락을 중심으로 축조시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sup>15)</sup> 안성현, 『고대성곽으로 본 창원시 지역 정치체의 동향』, 『昌原의 古代-바다와 강을 통한 交流의 歷史-』, 창원대학교박물관·(재)동서문물연구원, 2011a.

## 1. 형태 및 입지

대전리산성은 한탄강 남쪽 강안에 면한 성재산의 남서쪽 봉우리를 두르는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전통적인 분류안에 따르면 전형적인 사모봉형에 해당한다. 산성의 서쪽은 연천방면에서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의정부-남양주-서울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와 남동쪽으로는 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 북쪽에 입지한다. 산성에서는 북쪽과 서쪽으로 한탄강 넘어 전곡 일대의 넓은 평야와 교통로, 은대리성-전곡리토성과 남서쪽으로 초성리토성이 한눈에 조망된다. 특히 연천-동두천-의정부-서울을 잇는 교통로 중 한탄강과 동두천까지 대전리산성을 제외하고는 신라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축성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국경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구려는 임진강과 한탄강 북안을 따라 은대리성-전곡리토성-당포성-아미리보루-호로고루-두루봉보루-동파리보루-덕진산성-조랑진보루 등으로 선상 방어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6)</sup> 하지만 시각을 북쪽으로 조금만 넓혀 보면 평야와 임진강 사이인 황해도 지역에는 대형의 산성들이 교통로를 따라 위치<sup>17)</sup>하므로 고구려 역시 중심방어체계(縱深防禦體系)가 완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양 강의 남안을 따라 대전리산성-수철성-칠중성-봉서산성-오두산성 등이 배치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남-북방향의 교통로 상에 축성되어 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대전리산성과 오두산성은 각각 한탄강과 임진강의 남쪽에 면한 산정상부에 위치하며, 여주 파사성이나 남한강 유역 신라산성과 유사하다. 이에 반해 칠중성과 수철성, 봉서산성은 앞선 산성들과 달리 하천에서 약간 이격된 지점의 산정상부를 따라 고구려보다 대형의 산성을 축조하였으므로 북안의 고구려의 방어체계와는 차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서울-경기지역의 신라산성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입하는 교통로 상에 선상으로 축성되었고, 중심방어체계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sup>18)</sup>, 대전리산성은 서북 경계의 국경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高句麗研究會, 1999, 257~288쪽.  
백종오,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연보』3, 경기도박물관, 2000, 59~95쪽.  
徐榮一, 『京畿北部地域高句麗堡壘研究』, 『文化史學』第17輯, 韓國文化史學會, 2002, 63~80쪽.

심광주,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第12輯, 高句麗研究會, 2002a, 453~500쪽.

17) 신광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관방체계와 남부전선의 변화』, 『先史와 古代』35집, 한국고대학회, 2011, 189~224쪽.

18)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9-1호, 중부고고학회, 2010, 124쪽.

## 2.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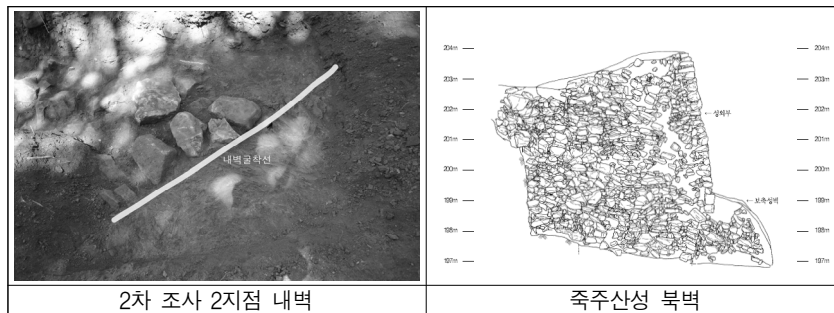
시·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성벽과 건물지가 있다. 이중 건물지는 중복이 심할 뿐 아니라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성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며, 성벽에 대한 조사결과 초축 및 수축성벽 및 기단보축, 보축성벽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수축성벽과 보축성벽은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산성의 초축 성벽과는 관련이 없다. 이절에서는 초축성벽과 기단보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초축성벽

대전리산성 초축성벽의 축조공정은 기저부조성→성벽 축조→기단보축 및 외부보강토 순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저부 조성

성벽 기저부의 조성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저부 조성 시 2차 조사 발굴1지점의 경우 성벽과 직교하는 방향은 계단상으로, 2차 조사 발굴2지점은 'L'자 상으로 굴착하였다. 전자는 석축 성벽 기저부 조성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수법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성에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후자는 신라산성의 성벽 기저부를 조성하는 방법 중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는 죽주산성 남벽·동벽·북벽에서 확인될 뿐이다.<sup>19)</sup>



도 9. 'L'자형 기저부 조성

둘째, 성벽 진행방향으로 단상을 이루는데, 2차 조사 발굴1지점에서는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2차 조사 발굴2지점의 경우 잔존규모는 너비 150cm, 높이

19) (재)한백문화재연구원·안성시, 『안성 죽주산성 동벽 정비구간-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

165cm정도 일정하지 않다. 기와의 연구에서는 이 형태의 기저부를 백제 성곽의 특징으로 본 견해<sup>20)</sup>와 신라산성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므로 백제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sup>21)</sup> 필자가 분석한 결과 성벽 진행방향으로 조성된 단은 크게 낮은 것과 높은 것, 정형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sup>22)</sup> 따라서 성벽 진행방향을 따라 계단상으로 기저부를 조성한 성곽을 재분석하여 축조주체와 국가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계단상의 기저부가 조사된 성곽은 파주 덕진산성<sup>23)</sup>, 포천 반월산성<sup>24)</sup>, 양주 대모산성<sup>25)</sup>, 이천 설봉산성<sup>26)</sup>, 이천 설성산성<sup>27)</sup>, 평택 자미산성<sup>28)</sup>, 안성 죽주산성<sup>29)</sup>, 용인 할미산성<sup>30)</sup>, 상주 견훤산성<sup>31)</sup>, 함양 사근산성<sup>32)</sup>, 거창 거열산성<sup>33)</sup>, 김해 양동산성<sup>34)</sup>, 함안 성산산성<sup>35)</sup>, 서울 아차산성<sup>36)</sup>, 충주 장미산성<sup>37)</sup>, 남해 대국산성<sup>38)</sup>, 광양 마로산성<sup>39)</sup>, 무안 봉대산성<sup>40)</sup>, 임실 성미산성<sup>41)</sup>, 전주 동고산성<sup>42)</sup>, 정읍 고부구읍성<sup>43)</sup>.

- 
- 20) 沈正輔, 『百濟 石築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第3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1, 140~141쪽.
- 21) 심광주,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高句麗研究』第20輯, 2002b, 269~304쪽.  
안성현, 앞의 글, 2007, 135~166쪽.
- 김영, 『경기지역 산성의 백제초축설 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17쪽.
- 22) 안성현, 『경기지역 중세 성곽연구-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韓日 城郭의 새로운 認識』, 차용결교수 정년퇴임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2015c, 196~199쪽.
- 23) 波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波州 德津山城 1·2次 學術發掘調査』, 2014.
- 2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6차 발굴조사보고서』, 2001.
- 25) 翰林大學校博物館,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2002.
- 2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봉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2.
- 2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이천 설성산성 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利川市·嘉耕考古學研究所, 『利川 雪城山城-6차 발굴조사-』, 2015.
- 28) 평택시·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29) 한백문화재연구원·안성시, 『안성 죽주산성 동벽 정비구간-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30) 京畿道博物館·龍仁市, 『龍仁 할미산성-試掘調査報告書-』, 2005.
- 31) 世宗文化財研究院, 『尙州 甄萱山城(推定 東門址)遺蹟』, 2012.
- 32) 경남문화재연구원, 『함양 사근산성 서문지구간 발굴조사 결과 약보고서』, 2013.  
함양군·경상문화재연구원, 『함양 사근산성-추정 동문지구간 발굴조사-』, 2014.
- 33) 우리문화재연구원, 『居昌 居烈山城-복원계획을 위한 시굴조사-』, 2006.
- 34)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金海市, 『金海 良洞山城 東門址·楊平 道谷里 遺蹟』, 2013.
- 3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咸安 城山山城』, 1998.
- 36) 서울시광진구·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 37)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주 장미산성』, 2006.
- 38) 남해군·경남문화재연구원, 『남해 대국산성』, 2003.
- 39) 光陽市·順天大學校博物館, 『光陽 馬老山城Ⅲ-성벽·문지·치-』, 2011.
- 40) 목포대학교박물관·무안군, 『무안 봉대산성』, 2007.
- 41) 전북문화재연구원·임실군, 『任實 城嶺山城』, 2009.
- 42) 전북문화재연구원·전주시, 『全州 東固山城』, 2011.
- 43) 전북문화재연구원·정읍시, 『井邑 古阜舊邑城 I』, 2007.

부여 성흥산성<sup>44)</sup> 등인데, 기저부의 구축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① 노두된 암반이 급경사를 이룰 경우 암괴에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성벽을 쌓은 형태로 남해 대국산성 서벽과 안성 죽주산성·상주 견훤산성 동문지 주변·무안 봉대산성 북서벽 등에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암반을 단상으로 가공한 후 성벽을 쌓은 것은 평택 자미산성 북벽·이천 설성산성 동남벽·양주 대모산성 북벽·함양 사근산성 서문지 주변·고부구읍성 동벽 및 수구지 주변 등에서 조사되었다.

② 단의 높이는 낮은 것과 높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단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파주 덕진산성·포천 반월산성·아차산성·이천 설봉산성 동벽 내벽 및 북벽 외벽·함양 사근산성 서문지 외벽·거창 거열산성·김해 양동산성 동문지·부여 성흥산성 서벽·충주 장미산성·충주 상단산성 서벽·광양 마로산성 동벽 내벽 등이 다. 이에 반해 비교적 높은 단을 이루는 것은 연천 대전리산성·이천 설성산성 북벽 내벽·평택 자미산성 북벽 외벽부·상주 견훤산성 동문지 외벽·함양 사근산성 서문지 내벽부·양주 대모산성 등이 해당된다.

③ 단상으로 굴착하였으나 지형에 맞추어 낮아지지 않고 부정형하게 조성한 것으로 입실 성미산성 남서벽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벽의 진행방향을 따라 계단상으로 기저부를 조성한 성벽들은 지역적으로 전국의 산성들에서 공히 나타날 뿐 아니라 동일한 지형상에서도 내벽과 외벽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축성 국가는 고구려-파주 덕진산성-, 백제-광양 마로산성·입실 성미산성-와 그 외 신라산성에서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특히 이천 설성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의 경우 외벽은 단이 낮은데 반해 내벽부는 단이 높다. 이와 더불어 시기를 달리하지만 조선시대 연해 읍성인 소흘비포성지<sup>46)</sup>, 고성읍성<sup>47)</sup>, 금단곶보성지<sup>48)</sup> 등에서도 계단상의 기저부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기저부 조성은 특정 국가나 시기와는 상관없이 성벽을 축성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굴착한 암반 위로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것과 점토를 다진

44)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성흥산성Ⅱ-부여 성흥산성 성곽정비복원 사업(발굴)-』, 2013.  
 45) 포천 반월산성·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평택 자미산성의 초축 주체에 대해서 백제(박경석 외 2000; 서영일, 『漢城百濟時代 石築山城의 築造 背景 研究』, 『文化史學』, 韓國文化史學會, 2005, 99~123쪽; 백종오, 2003) 신라(심광주 2000; 김영 2010)로 나누어지므로 이장에서는 제외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성들이 백제나 신라 중 어느 국가에 의해서 축성되었는지 간에 이 글의 내용과 배치되지는 않는다.  
 46)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소흘비포성지』, 2007.  
 47) 동아대학교박물관, 『固城邑城址』, 2006.  
 48) 부산박물관, 『금단곶보성지』, 2007.

후 성벽을 쌓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암반 위로 성벽을 쌓은 것은 우리나라 산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리고 점토를 다져서 기저부를 보강하거나 암반을 굴착한 후 쌓은 성벽 역시 연천 대전리산성·포천 반월산성·대전 보문산성<sup>49)</sup>·함안 성산산성·밀양 추화산성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성들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벽의 기저부 조성은 지형이나 지질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축조수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시기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성벽

대전리산성 성벽의 단면 형태는 내벽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편축식이며, 외벽은 모서리가 각이진 할석으로 전형적인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축성은 당대의 토목기술과 관념-정치상황과 국가 간의 관계, 사회의 발전정도와 관방체제-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주제에 의해서 동시기에 축성된 성곽들의 형태는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성벽의 축조수법은 유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50)</sup> 따라서 성벽의 단면형태와 외벽축조수법은 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 ① 단면형태

신라산성의 단면형태 변화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즉 5세기 후반경에 축성된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청원 양성산성 등은 동일성곽에서 편축식과 협축식 성벽이 모두 보이지만 성벽의 높이가 최소 10m이상이며, 특히 삼년산성의 경우 잔존 성벽이 24m정도로 우리나라 성곽들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양상은 6세기 대에 들어 10m내외로 낮아지는데, 경남과 충청 및 경기지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경남지역은 6세기~7세기에 축성된 김해 양동산성·신기산성·분산성과 의령 벽화산성·함안 성산산성, 함양 사근산성과 거창 거열산성, 남해 대국산성 및 거제 둔덕기성, 창녕 목마산성과 추화산성의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벽의 높이가 6~8m내외로 유사하다.<sup>51)</sup>

이에 반해 충청 및 경기지역 산성들은 경남지역과 유사한 것과 이전 시기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하남 이성산성·서울 아차산성·포천

49) 大田直轄市,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1994.

50) 안성현, 『방어시설 성벽-석성-』, 『한국성곽조사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3, 120~126쪽.

51) 일반적으로 산성의 성벽은 능선의 정상 및 정선부와 사면을 두른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분석은 사면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혀 둔다.

반월산성·여주 파사성·양천고산성·인천 계양산성·김포 수안산성 및 삼국시대 문수산성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후자는 연천 대전리산성·양주 대모산성과 지역은 달리 하지만 영월 정양산성<sup>52)</sup> 역시 여기에 속한다. 서울·경기 지역 신라산성들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6세기 중·후반경에서 7세기 전반경에 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들 성곽들은 시기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렵고, 기능이나 성격·축조 국가내 집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남한산성과 경주 신대리성 및 상당산성, 안성 망이산성·무안 봉대산성·고성 거류산성 등이 있다. 이중 남한산성의 성벽은 외벽 바깥에 보축성벽을 쌓았으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다.<sup>53)</sup> 다만 이 시기 산성의 성벽 높이는 대체적으로 4~6m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전 시기의 성벽보다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넘어가면서 성벽의 높이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며, 대전리산성은 삼국시대 산성의 특징과 부합한다.

## ② 외벽축조수법

대전리산성의 성벽은 한 차례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초축 성벽은 편마암계(장)방형 및 부정형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고, 면석 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초축성벽의 면석은 두께와 너비의 장단비가 대체로 1:2~1:3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6세기에서 7세기 중엽에 축성된 신라성과 면석의 장평비에 해당한다.<sup>54)</sup> 또한 외벽의 축조수법 역시 정연한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2열 쌓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고식에 해당한다.

신라 북속 이후 서울·경기지역 산성들의 축조수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첫째, 대전리산성과 유사한 형태로 여주 파사성·안성 죽주산성·아차산성·하남 이성산성·서울 양천고성지 등 경기지역 대부분의 삼국시대 신라산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산성들 중 용인 할미산성과 화성 당성 등은 부분적으로 두꺼운 할석의 비율이 높은 부분도 확인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대형의 할석

52) 영월 정양산성의 축조시기를 5세기 후반으로 비정하는 견해(최관호,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37~47쪽.)가 있으나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로 보아 6세기 전반에 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산성에 대한 연차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자료가 확보될 경우 축성시기가 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3) 심광주, 『주장성(書長城) 축성기술과 남한산성』, 『한국성곽학보』21집, 한국성곽학회, 2012, 133쪽.

54) 심광주, 『이성산성의 축성기법에 대한 고찰』, 『二城山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2000, 256~261쪽.

을 사용한 예는 경주 명활성에서도 확인된 바<sup>55)</sup> 있으며, 현재까지 자료로서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려우나 동일한 축조집단이 참여하였을 가능성만 제시한다.

둘째, 다듬은 할석으로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불암산성과 남한산성, 안성 망이산성 등이 있다. 이중 남한산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조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나당전쟁기의 주장성일 가능성이 높다. 불암산성의 초축성벽은 비교적 두꺼운 장방형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내부에서는 6세기 중·후반의 토기가 출토되었다.<sup>56)</sup>

위의 분석 대상 유적 중 남한산성과 안성 망이산성을 제외하고는 신라의 북진기에 축조된 산성들이 분명하다. 불암산성의 경우 축조수법만으로 한정할 때 다른 산성들보다 늦은 시기로 보이지만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시기를 늦춰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서울·경기지역 산성의 보고서에서는 축조시기를 대체적으로 6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 전반으로 축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산성들의 축조수법의 차이는 시간성을 반영하다고 보기 어렵고, 축성을 담당하였던 집단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양한 집단이 축성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도 10. 서울·경기 지역 성벽

55) 류환성, 『경주 명활성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검토』, 『한국성곽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한국 성곽의 최근 조사 연구 성과』, 한국성곽학회, 2014, 55~87쪽.

56) 국방문화재연구원, 『불암산성 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7.

### ③ 기단보축

대전리산성의 기단보축은 한 차례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중 1차 기단보축은 조사지역 전 구간에서 확인되지만 규모는 지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축의 특징은 첫째, 단면 형태는 삼각형으로 기울기는 65° 정도이다. 둘째, 외벽 기저부에서 약 20~30cm정도 이격된 지점부터 암반을 굴착한 뒤 성벽보다 낮은 곳부터 보축의 외벽을 쌓았다. 셋째, 보축의 외벽은 성벽보다 조잡하지만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넷째, 적심은 할석이 일부 혼입되었지만 흙으로 다졌다. 다섯째, 보축으로 덮이는 부분의 성벽은 치밀하게 잘 쌓았지만 상부에 비하여 조잡하므로 성벽과 동시기에 축조되었음이 분명하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기단보축의 설치 주체를 두고 크게 신라의 영토확장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sup>57)</sup>와 백제 산성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를 설치하였다는 견해<sup>58)</sup>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에 반해 필자는 기단보축이 성벽과 동시기에 설치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 후 보축을 신라 산성에만 축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남지역만을 한정할 때 6세기 전반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후 소멸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문성 이전의 성곽에 주로 설치되었다고 본 바 있다.<sup>59)</sup>

이렇듯 기단보축의 설치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축의 축조 여부가 축조주체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며, (한성)백제가 석축산성을 축조하였는가로 환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단보축의 동시성과 단면형태에 관한 것이다. 기단보축과 성벽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벽의 기저부 조성방법, 외벽과 기단보축 사이의 토층양상, 기단보축에 덮이는 외벽부의 축조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단보축으로 덮이는 부분의 성벽은 상부와는 달리 상부와 동일하게 치석된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허튼층쌓기에 가깝지만 치밀하게 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함안성산산성·김해 분산성 등으로 동시기에 설치되었다.

후자는 남해 대국산성·거창 거열산성·창녕 구진산성과 파주 덕진산성·평택

57) 翰林大學校博物館·文化財研究所, 『楊州大母山城』, 1990, 42쪽.

박종익, 『城廓遺蹟을 통해 본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 『畿甸考古』제5호, 2005, 231~249쪽.

심광주, 앞의 글, 2003, 173~176쪽.

58) 沈正輔, 『백제 산성의 이해』, 주류성, 2004, 17쪽.

59) 안성현, 앞의 글, 2007, 135~166쪽.

자미산성<sup>60)</sup> 등이며, 축조시기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대국산성의 경우 외성이 폐기된 이후에 기단보축이 설치되었으므로 성벽과는 상당한 시간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sup>61)</sup>

한편, 단면 형태는 삼각형과 부채꼴<sup>62)</sup>이나 삼각형과 방형 및 계단식<sup>63)</sup>으로 나누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장조사 시 부채꼴형태를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부채꼴형태의 기단보축은 초축 당시에는 삼각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성곽에서 확인되는 기단보축은 단면 (장)방형은 없으며, 삼각형만 설치되었다.

둘째, 기단보축 축조에 사용된 재료에 관한 것으로 서울·경기 지역만을 한정할 때 석축과 토축으로 나누어진다. 석축은 이 지역 대부분의 산성들에서 확인되며, 적심은 흙과 석재로 구분된다. 먼저 적심을 흙으로 다진 산성들은 대전리산성, 파주 오두산성·파주 덕진산성 등이다. 이중 덕진산성의 1차 기단보축 적심은 흙으로, 상부의 2차 기단보축은 할석으로 쌓았다. 이와 달리 전형적인 신라산성의 기단보축과 동일하게 할석으로 채운 것은 이 지역 대부분의 산성에서 확인된다.

토축으로 보강한 것은 화성 당성 1차 산성과 하남 이성산성, 행주산성 석축성에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성은 2015년 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단보축이 확인되었다. 즉, 점토와 석재를 혼합한 삼각형 보축과 부정형 보축, 그리고 적갈색사질점토를 다져서 보강하였으며<sup>64)</sup>, 붕괴된 성석과 유물들이 다짐층 상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초축성벽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성산성은 기와의 조사결과 기단보축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절개조사가 이루어진 8차 보고서<sup>65)</sup>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초축성벽의 붕괴부는 성벽 기저부가 아닌 사질점토층 상부에 위치하므로 성벽의 기저부와 붕괴부 사이의 점토층은 초축성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점토층의 명확한

60) 평택 자미산성 서벽 2구간의 성벽은 주로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고,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잔자갈과 사질점토를 혼합하여 약 50~70cm정도를 다졌다. 그 위로 단면 삼각형태의 기단보축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기단보축은 성벽 축조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평택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61) 안성현, 앞의 글, 2007, 142쪽.

62) 朴鐘益, 『三國時代의 山城에 대한 一考察』-新羅山城의 基壇補築을 중심으로-, 東義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3.

\_\_\_\_\_, 앞의 글, 2006, 231~249쪽.

63) 안성현, 앞의 글, 2007, 145~147쪽.

64)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당성 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15.

65) 한양대학교박물관·하남시, 『二城山城-第9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0.

성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한 다짐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주산성<sup>66)</sup>, 당성의 1차 산성과 이성산성의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흙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벽 전 구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왕의 연구에서 성벽 기저부를 토축으로 보강한 형태는 백제산성의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sup>67)</sup> 하지만 신라가 축성한 것이 분명한 산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축이 확인되었으므로 서울·경기 지역을 한정할 때 백제성곽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고 백제의 축성기법이 신라산성 축조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남해 대국산성 기단보축

함안 성산산성 기단보축

파주 덕진산성 성벽 및 기단보축

고양 행주산성 보강토

도 11. 기단보축 각종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전리산성의 기단보축은 할석 1단을 쌓으면서 내부에 흙을 1~2층 다졌으며, 외부는 점토를 다져서 보축을 보강하였고, 보축의 단면형태는 삼각형이다. 적심을 흙으로 다진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신라산성

66) 불교문화재연구원, 2017, 『고양 행주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발굴(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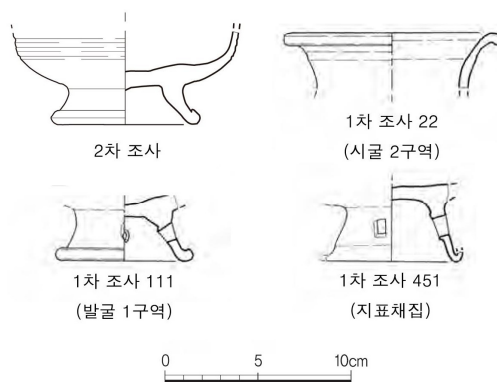
67) 최인선, 2014, 『호남지방의 백제산성』, 『韓國城郭研究의 新傾向』, 심정보박사 정년퇴임 기념논문 총 간행위원회, p. 136.

의 기단보축과 동일하다. 적심 역시 신라의 기단보축이 확실한 파주 덕진산성·오두산성에도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므로 대전리산성의 기단보축 역시 신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2. 유물

산성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며, 이들 유물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을 성곽의 축조시기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초축 시기를 파악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성곽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곽의 축조시기보다 이른 유물이 출토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sup>68)</sup> 그러므로 이러한 유물들은 축조시기의 상황을 알려줄 뿐이다.<sup>69)</sup> 성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초축 시기를 논한다면 서울·경기지역의 대부분의 성곽들은 백제성곽, 경남지역은 가야산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리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 및 막새편과 토기편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기와는 편들이라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판 타날판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막새기와 역시 자미산성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출토위치를 감안할 때 자미산성의 수축문지보다 늦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7세기대에 해당한다.<sup>70)</sup> 따라서 초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도 12. 1·2차 발굴조사 토기

68) 안성현, 『창녕 화왕산성 성격 연구』, 『愚堂 李榮奭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 愚堂李榮奭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2011, 189쪽.

69) 심광주, 앞의 글, 2003, 170쪽.

70) 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0.

토기편 역시 대부분이 편들이라 정확한 기형과 기종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고배 및 개편, 완, 그리고 호·병·옹편으로 추정되는 동체 및 저부편,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 2차 조사에서 출토된 고배는 상단부는 유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무투창 단각고배이며, ‘八’자형으로 벌여져 단부로 이어지며, 단부는 바깥으로 말아 올려 마무리하였다. 배신의 외면 하부에 2조의 침선을 돌렸다. 1차 조사에서는 단각고배의 대각편 3점이 출토되었다. 이중 2점은 회색 경질편으로 투공이 확인되나 형태는 원형(보고서 번호 111-발굴1구역-)과 장방형(보고서 번호 451-지표채집)이며, 다른 하나는 대각면에 2조의 돌대를 돌렸다.(보고서번호 22-시굴2구역 2트렌치-)

고배편들은 대각이나 배신 상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지만 1차 조사 451번의 대각형태는 윤상덕과 강진주의 대각·굽 형태의 a형<sup>71)</sup>, 박성남의 대각 분류안 2식<sup>72)</sup>에 해당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로 보이지만 돌대를 두어 구획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2차 조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편들은 대각의 높이가 3cm이하로 투창 및 투공 아래로 돌대나 침선을 두어 구획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단각화가 이루어지는 6세기 중·후반이나 7세기경의 신라토기후기 양식에 해당하며, 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뚜껑은 ‘卜’자형 1점(보고서 번호 111, 발굴1구역)과 ‘入’자형 2점(보고서 번호 12·26) 등 총 3점이 출토되었으나 모두 소편이라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므로 잔존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뚜껑은 고배 구연의 형태에 따라 다른 개가 쓰였는데, 뚜껑받이턱이 있는 그릇에는 ‘卜’자형 구연이, 직립구연에는 ‘入’자형 구연의 개가 사용되었다.<sup>73)</sup>

이중 ‘卜’자형 개(보고서 번호 11)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드림부는 직립하고, 구연을 둥글게 처리하였다. 드림부 길이는 1.6cm 정도로 상당히 길고 상단과 하단에 2조의 침선을 돌렸다. 개신의 전면에는 원점문을 처리하였다. 이 형태의 개는 전형적인 ‘卜’자형과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최병현의 신라 전기 4기의 개와 유사하며<sup>74)</sup>, 소성상태나 태토로 보아 중앙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개신 전면에 원점문을

71) 윤상덕,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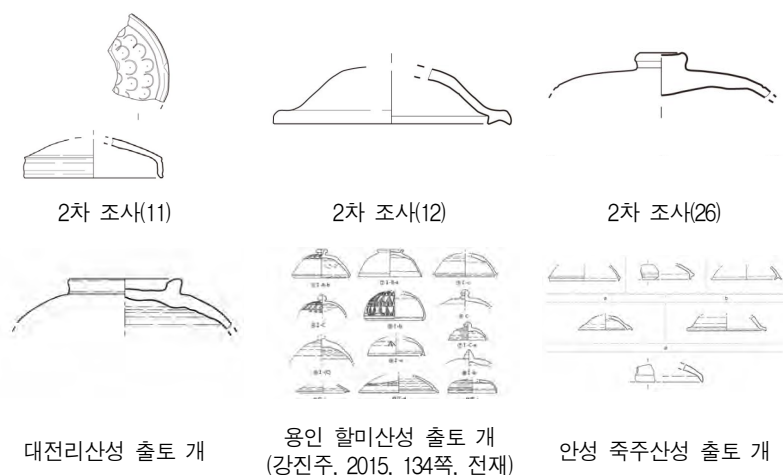
72) 박성남, 『서울·京畿 城郭 및 古墳 出土 新羅 印花紋土器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9, 34쪽.

73) 강진주, 『할미산성 출토 유물에 대한 검토』,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활용 방안』,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133쪽.

74) 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59號, 영남고고학회, 2011, 141~143쪽.

인화하였다는 점에서 6세기 중·후반경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의 서울·경기 지역에 축성된 다수의 성곽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6세기 후반경의 토기가 출토되는 성곽으로는 연천 대전리산성을 비롯해, 포천 반월산성·양주 대모산성<sup>75)</sup>·하남 이성산성<sup>76)</sup>·서울 양천고성지<sup>77)</sup>·인천 계양산성<sup>78)</sup>·안성 죽주산성<sup>79)</sup>·용인 할미산성<sup>80)</sup> 등과 더불어 이 이외 다수의 산성 등이며,<sup>81)</sup> 이 지역의 신라산성들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도 13. 1:2차 조사 출토 개

#### IV. 대전리산성의 축조배경과 의미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전리산성의 입지와 축조수법, 출토유물 등을 종합해보면, 산성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6세기 중·후반경에 축성되었다고

75) 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2002.

76) 하남시·한양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000.

77) 서울특별시 강서구·(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양천고성지-통합보고서-』, 2016.

7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1.

79) 서영일, 『안성 죽주산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안성 죽주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한국고통대학교 박물관, 2015, 25~48쪽.

80) 백중오, 『할미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용인 할미산과 할미산성』, 용인향토문화연구회, 2010.

81) 파주 오두산성의 경우 이 시기 유물이 채집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성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동일한 시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라의 북진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다만 그 근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두 가지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한강유역에서 6세기 중·후반경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된 유적의 분포는 신라의 북진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고분과 산성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산성은 아차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성동리산성·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 여주 파사성, 평택 자미산성, 용인 할미산성, 인천 계양산성 등과 이글의 분석 대상이 아닌 산성들도 포함된다.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아차산성에 대한 조사결과 7세기 전반경에 축조되었다고 보고<sup>82)</sup>하였으나 이후 출토유물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6세기 후반으로 비정하였다.<sup>83)</sup> 최근에 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인화문토기가 늦어도 6세기 말에 제작되었다는 견해는 이러한 산성이 늦어도 6세기 후반경에 축성되었음을 반증한다.<sup>84)</sup>

양주 대모산성은 매소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5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sup>85)</sup>되었으며,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 및 고고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sup>86)</sup> 그 결과 대체적으로 6세기 후반경에 축성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토기 역시 이 시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sup>87)</sup> 또한 포천 반월산성과 설봉산성, 설성산성의 축조수법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일하며, 출토유물 역시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시차를 두기 어렵다.<sup>88)</sup> 특히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무개고배는 용인 할미산성에서 6세기 후반에 속하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함께 발견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89)</sup>

한강 이남에 위치하는 용인 할미산성은 신라의 북진기에 축성되어 7세기 중반경에 폐성되었으며, 다른 산성들과는 달리 내부에서 기와류는 거의 출토되지

82)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2000.

83) 任孝宰·尹相惠, 『阿且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清溪史學』第16·17輯,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2002, 203~222쪽.

84) 윤상덕,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147~148쪽.

한강문화재연구원,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2차 발굴조사 7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85)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990.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2.

86) 노혁진외,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87) 박성남, 앞의 글, 2009, 70~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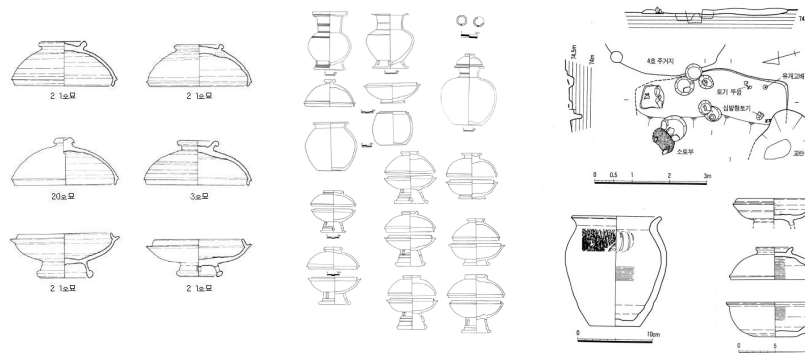
88) 포천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89)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9~70쪽.

않았을 뿐 아니라 수혈주거지들이 다수 조사되었다.<sup>90)</sup> 이와 더불어 양천고산성, 인천 계양산성, 평택 자미산성, 하남 이성산성, 당성 등에서도 유사한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한편, 서울·경기 지역내 신라토기가 출토된 대표적인 고분군은 파주 성동리 고분군, 파주 법흥리 고분군, 여주 매룡리 용강골 고분군, 용인 보정리·소실 고분군, 하남 광암동 유적, 부천 고강동 고분군, 여주 하거리 방미기골 고분군, 여주 대평리 고분군, 군포 산본동 고분군, 화성 천천리 유적, 안성 반제리 고분군, 여주 상거리 유적, 하남 수리골 유적, 설봉산성 부성 내 석실분 등이 있다.<sup>91)</sup>

이들 고분군들은 대부분 한강 이남에 위치하지만 파주 성동리 및 법흥리 고분군은 한강 하류지역에 입지한다. 이중 성동리 고분군은 인화문토기가 출현하기 이전이나 그 즈음의 비교적 빠른 시기의 유적으로 처음 조영된 시기는 6세기 중반 후엽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고분군에서 금동관을 비롯하여 은제이식, 금동교구 등의 위신재가 출토됨으로써 지배세력의 무덤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sup>92)</sup> 또한 고분군과 인접한 오두산에는 오두산성이 축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라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한강하류역인 파주까지 진출한 것은 분명하다.



용인 보정동 고분군 출토유물 (홍보식 2005a, 전재<sup>93)</sup>)      파주 성동리고분 경희대 조사 2호석실분출토유물 (김성태·허미영, 2005, 전재<sup>94)</sup>)      포천 성동리유적 5호 주거지 (김성태·허미영, 2005, 전재)

도 14. 한강 북쪽 유적 및 출토 유물

90) 용인시·한국문화유산연구원, 『龍仁 할미산성(II)』, 2014.

91) 강진주, 앞의 글/ 박성남, 2009, 앞의 글/ 김진영, 2007, 『한강유역 신라고분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등을 참고하였다.

92) 김성태·허미영, 앞의 글, 2005, 252~253쪽.

93) 홍보식, 『신라토기의 한강유역 정착과정에 대한 시론-용인 보정리 소실분묘군 출토품을 중심

이와 더불어 파주 성동리 유적의 신라주거지 및 수혈유구<sup>95)</sup>와 고려문화재연구원  
에서 발굴조사된 가평 향사리 유적의 15호 주거지내에서는 신라의 단각고배와  
개편 등이 출토되었다.<sup>96)</sup> 특히 포천 성동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인근한 성동  
리 산성과 동일<sup>97)</sup>하다는 점에서 동시기 유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라가  
6세기 후반경에 포천지역까지 진출한 것 역시 분명하다.

한편, 성동리산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철원 할미산성이 위치하  
는데, 이 성을 위성으로 파악한 예가 있다. 또한 할미산성에서 북서쪽과 북동쪽에  
는 각각 동주산성과 성산성이 축성되어 있으며, 북진기 신라산성이라는 견해가  
발표되었다.<sup>98)</sup> 따라서 신라는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추가령구조곡의 중요성을 인  
식하였고, 그에 따른 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시기 신라의 서북  
방향의 국경선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이었음을 시사한다.<sup>99)</sup>

둘째, 임진강 및 한탄강 북안에 축성된 고구려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구의 폐기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라는 임진강 북안으로 진출한  
것이 되므로 강의 남쪽 대안에 안정적인 배후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강 북안에 축조된 신라산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호  
로고루 내부 집수시설-지하식 건물지-과 수혈유구가 주목된다.

집수시설은 성 내부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

으로-], 『畿甸考古』제5호,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310쪽.

94) 김성태·허미영, 앞의 글, 2005, 255쪽.

95) 白種伍·玄男周, 『抱川 城東里山城 精密地表調査報告』, 『抱川 城東里 마을遺蹟』, 京畿道博物館, 1999.

96) 고려문화재연구원, 『加平 項沙里遺蹟-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재 발굴조사(B 지구)-』, 2010.

97) 白種伍·玄男周, 앞의 책, 1999.

98)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第135輯, 陸軍軍事研究所, 2103, 309~334쪽.

99)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시기 고구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중반경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 분쟁과 대외적으로 돌궐과 북제와의 갈등으로 인해  
신라와 백제의 한강유역에 대한 공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으나 6세기 후반에는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결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경에는 신라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  
를 취할 수 있었다.(張彩恩,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方向』, 『民  
族文化論叢』第55輯, 2013, 411~425쪽.)

위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한강 북안과 임진강 사이에 신라가 산성을 축조할 수 있는 시기는  
한강을 점유한 직후인 6세기 중반에서 6세기 후반 이전과 7세기 초반 이후임을 알 수 있는데,  
필자는 전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후자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 한 후 20~30년 이상 축성하지 않다가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시기  
에 비로소 성곽을 쌓았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한강 북안의 산성이나  
고분 및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시기는 이러한 상황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별도의 논고에서 다룰 것임을 밝혀 둔다.

은 선축된 고구려의 수혈유구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유구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N-48°-W이다. 규모는 동서길이 786cm, 남북길이 720cm, 깊이 264cm이다. 집수시설의 바닥에는 통나무를 직교하게 설치하였고, 호안석축은 할석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주목되는 점은 내부토는 9개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중하층에서 해당하는 V~IX층에서 이제까지 출토된 고구려 기와와는 다른 경질기와가 출토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V층은 지하식 건물지에 쓰인 초석들이 확인되며, VI층은 하부 다짐층으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VIII층은 2층으로 나누어지는데, VIII-1층은 회색 개흙층, VIII-2층은 부엽토와 개흙을 교차로 쌓았다. IX층은 회색점토층으로 입자가 곱고 매우 단단하다. 따라서 VIII층은 동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다만 상층인 V~VII층은 후대층이 분명하지만 IX층은 VIII층 이전의 퇴적층인지 분명하지 않다. 경질기와들의 특징은 대부분 선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모골흔이 없고, 사절흔 및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또한 고온의 환원염으로 소성되어 표면에는 자연유가 형성된 것이 있고, 태토의 내화력에 비하여 소성온도가 높아 기형이 뒤틀려 있는 것이 많다.<sup>10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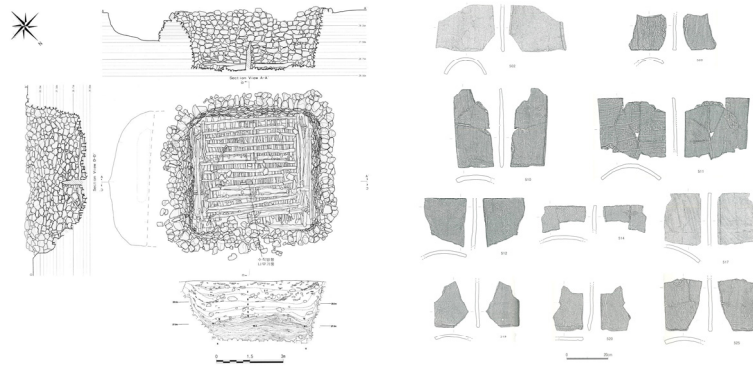
조사단이 밝힌 것과 같이 집수시설 하부에서 출토된 경질기와들은 기존에 알려진 고구려 기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들 유물에 대한 해석인데, 두 견해로 나누어진다. 먼저 조사단은 공반되는 유물이 고구려 토기편들이며, 적갈색 연질기와는 출토되지 않았고, 집수시설의 안정된 층위를 바탕으로 출토된 점을 감안할 때 적갈색 연질기와보다 이른 시기의 고구려 기와로 보고하였다. 특히 회청색 경질기와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은 고구려보다는 오히려 6세기 초중엽의 신라기와와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고구려에 잡혀간 신라의 와공들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생산된 기와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김성구는 경질기와가 점토관으로 성형하였고, 선조문을 타날한 다음 고온으로 소성된 고신라 특유의 제작기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신라 기와로 추정하였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확보한 6세기 중반경 최전방에 관방시설을 축조한 후 곧 바로 고구려에 의해서 격퇴됨으로써 점령 주체가 바뀐 것으로 보았다.<sup>101)</sup>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弧蘆古壘Ⅳ-第 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101) 김성구, 『중원기와의 전개와 주요유적의 기능전환』, 『한국기와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12, 20쪽.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기와의 용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료로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출토량으로 보아 건물지에 사용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현재까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기와의 사용처는 건물지 이외 배수로, 외관묘, 외적기단, 의례유구 내 폐기 등 다양하므로 자료의 축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집수시설

집수시설 출토 기와편

도 15. 호로그루 집수시설 및 출토기와

필자는 후자의 견해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 즉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 경질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기와는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기법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와의 제작은 토기에 비해 어렵지 않으므로 소량의 기와를 굽기 위해 신라의 장인을 이용하였다는 설명은 아무래도 궁색하므로 신라기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호로그루의 입지 및 평면 형태나 축조수법은 임진강 유역의 전형적인 고구려산성과 동일하며, 신라산성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집수시설은 고구려의 수혈유구를 파괴하고 설치되었으므로 초축 단계의 부속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보루 내부에서 5세기 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로그루가 신라에 의해서 축조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신라가 짧은 기간 동안 점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성내부의 수혈유구 중 목책과 중복된 것과 집수시설에 선행 중복된 것의 내부가 자연퇴적 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물론 신라산성의 경우 시기적으로 활용된 공간이 동일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아차산성의 경우 집수지가 위치하는 곡부는 초축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데 반해 곡성이 위치하는 북서쪽 가장자리 내부 평탄지는 통일신라시대가 되어야 건물지가 축조된다. 다만 호로그루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별로 활용된 공간이 달랐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호로그루 주변으로 6세기 중·후반경의 신라유적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그 대안의 칠중성을 주목하는 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이 시기 신라가 한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면 중간 거점 없이 한탄강 북안의 호로그루를 점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진강 및 한탄강 인근까지 신라가 북진하였다고 가정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와 고구려는 국경선을 따라 소규모의 전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 무등리 2보루 남벽 외부의 목탄층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단은 고구려 군이 적에 의해 보루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불을 질러 성을 폐기하였을 가능성과 성벽 내외면의 점토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성벽 외면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sup>102)</sup>, 보고서에서는 후자에 비중을 두는 듯하다.<sup>103)</sup> 하지만 필자는 조사단의 견해를 수긍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조사단의 해석과 같이 의도적 화재일 경우 구의동보루의 예와 동일하게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확인되어야 하며, 외벽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보기에는 잔존하는 목탄층의 양(목탄의 규모는 너비 300cm, 높이 40cm이상임)이 너무 많다. 또한 두 해석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성벽의 외벽과 부속시설-건물지, 배수로, 석축의 면적에서 피열흔과 소결토가 잔존해야 하지만 조사결과에서 이러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조사된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의 외벽 기저부에서 목탄 및 소토층이 두텁게 확인된 예는 없다. 그리고 내부에서 생성된 목탄을 보루가 사용된 시기에 성벽 바깥으로 폐기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마지막으로 목탄층은 다짐층 혹은 퇴적층 상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목탄층은 고구려가 보루를 재사용 할 때 내부의 목탄을 폐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04)</sup>



남벽 2지구

남벽 2지구 외부 목탄층

도 16. 무등리 2보루

102)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2012.

103)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2015.

104) 무등리 2보루에서는 연천 호로그루와 달리 신라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2보루의 경우는 호로그루와 달리 전투 후 신라가 바로 퇴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전투 및 점령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전리산성의 축조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한강 유역과 파주지역의 신라 산성과 고분·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은 6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sup>105)</sup> 이 지역 산성들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단각고배와 1단 투창고배, 卜자형 뚜껑, 개신부에 삼각집선문과 원문이 조합된 양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sup>106)</sup> 또한 대전리산성의 축조수법과 출토유물의 검토한 결과 한탄강유역까지 복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신라산성에서 출토된 철기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sup>107)</sup> 따라서 신라는 553년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임진강과 한탄강의 남쪽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성하였음을 시사한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북서쪽 국경선은 임진강과 한탄강 선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108)</sup> 그렇지 않은 경우 고구려와 추가령구조곡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영동 지역 및 경기 서부지역과 한강유역의 방어가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산성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양이 적을 뿐 아니라 기와 역시 드물게 출토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지배보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V. 맺음말

이 글은 연천 대전리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서울·경기지역 석축산성의 축조수법과 유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전리산성은 6세기 중·후반경에 축조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 지역의 산성과 고분군을 분석한 결과 신라는 553년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산성과 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들은 대부분 6세기 중반에서 후반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 동안

105) 홍보식, 『한강유역 신라 石室墓의 受容가 展開』, 『畿甸考古』 제5호,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5, 284쪽.

10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단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I·II-』, 2004.

107) 김길식, 『6~7세기 경기북부지역 신라 성곽의 철기 수급체계』, 『百濟文化』 제54輯, 2016, 205~247쪽.

108) 연천읍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옥녀봉산성은 신라가 쌓은 것이 확실하며, 축조수법으로 보아 군사산성 및 칠중성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다.(한국토지공사박물관·연천군, 앞의 책, 2000, 338~339쪽.) 이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전리산성과 동시기에 축성되었다면, 6세기 중·후반경의 신라와 고구려의 서쪽 국경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대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 단언하기 어렵다.

집중적으로 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 시기 유물은 각 산성마다 소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점령지의 안정적인 지배보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호로그루 내부 집수시설-지하건물지-의 다집층에서 출토된 기와는 신라의 경질기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라가 호로그루를 단기간 동안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경선을 따라 소규모의 전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점유 형태 역시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 자료로서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18년 8월 4일 |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30일 ■

## 참고문헌

-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경기도박물관, 『抱川 城東里 마을遺蹟』, 1999
-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고구려 유적-종합정비 기본 계획-』, 2008.
- 고려문화재연구원, 『加平 項沙里遺蹟-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재 발굴조사(B지구)-』, 2010
- 국립문화재연구소, 『남한의 고구려 유적-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안)-』, 2006
- 국방문화재연구원, 『불암산성 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7
- 김길식, 『6~7세기 경기북부지역 신라 성곽의 철기 수급체계』, 『百濟文化』第54輯, 2016
- 김성구, 『중원기와의 전개와 주요유적의 기능전환』, 『한국기외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외학회, 2012
- 김성태·허미형, 『임진강 유역의 新羅遺蹟』, 『畿甸考古』제5호, 2005
- 노혁진외, 『楊州 大母山城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 포천시·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 大田直轄市,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1994
- 박성남, 『서울·京畿 城郭 및 古墳 出土 新羅 印花紋土器 研究』, 慶北大學 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9
- 朴省炫, 『新羅의 據點城 축조와 지방 제도의 정비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종익, 『城郭遺蹟을 통해 본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 『畿甸考古』제5호, 2005
- 백종오,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연보』3, 경기도박물관, 2000
- \_\_\_\_\_,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임진강에서 금강까지-』, 서경문화사, 2006
- 白種伍·玄男周, 『抱川 城東里山城 情密地表面調査報告』, 『抱川 城東里 마을遺蹟』, 京畿道博物館, 1999
- 徐榮一, 『京畿北部地域高句麗堡壘研究』, 『文化史學』第17輯, 韓國文化史學會, 2002
- \_\_\_\_\_,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9-1호, 중부고고

- 학회, 2010
-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우물-虎巖山城 및 蓮池 發掘調査報告書-』, 1990a
- \_\_\_\_\_,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2000
- \_\_\_\_\_, 『연천 고구려성곽(3개소)발굴 및 정밀지표조사 약보고』, 2010
- 심광주, 『이성산성의 축성기법에 대한 고찰』, 『二城山城-7차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 \_\_\_\_\_,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第12輯, 高句麗研究會, 2002a
- \_\_\_\_\_, 『高句麗와 百濟의 城郭文化』, 『高句麗研究』第20輯, 2002b
- 沈正輔, 『百濟 石築山城의 築造技法과 性格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第35號, 韓國上古史學會, 2001
- 안성현, 『慶南地域 古代 石築山城 築造技法에 관한 연구-基壇補築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제11집, 2007
- \_\_\_\_\_, 『창녕지역 고대 성곽에 대한 연구-낙동강 연안에 축성된 성곽을 중심으로-』, 『한국성곽학보』, 한국성곽학회, 제19집, 2102
- \_\_\_\_\_, 『방어시설 성벽-석성』, 『한국성곽조사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2013
- \_\_\_\_\_, 『김해지역 삼국시대 성곽의 축성 배경』, 『문물』제7호, 2017a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토지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5
- 윤상덕, 『6~7세기 경주지역 신라토기 편년』, 『한반도 고대문화 속의 울릉도-토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용인시·한국문화재유산연구원, 『龍仁 할미산성(II)』, 2014
- 이춘근, 『조선시대 성곽과 봉수 관리정책』, 『한국성곽학보』제12집, 2007
- 任孝宰·尹相惠, 『阿且山城의 築造年代에 대하여』, 『淸溪史學』第16·17輯, 한국정신문화연구원청계사학회, 2002
- 張彩恩,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民族文化論叢』第55輯, 2013
- 전덕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 『鄉土서울』第73號, 2009
- 최관호,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병현,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嶺南考古學』59號, 영남고고학회, 2011
- 최인선, 『호남지방의 백제산성』, 『韓國城郭研究의 新傾向』, 심정보박사 정년

- 퇴임 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14
- 崔種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高句麗研究會, 1999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漣川 孤蘆古壘Ⅳ-第 3·4次 發掘調査報告書-』, 2014
- 翰林大學校博物館·文化財研究所, 『楊州大母山城』, 1990
- 한림대학교 박물관, 『양주 대모산성-동문지·서문지-』, 2002
- 한백문화재연구원·안성시, 『안성 죽주산성 동벽 정비구간-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2006
- 평택시·한백문화재연구원, 『평택 자미산성-2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0
- 한양대학교박물관·하남시, 『二城山城-第9次 發掘調査 報告書-』, 2000
- 서울특별시 강서구·(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서울 양천고성지-통합보고서-』, 2016
- 홍보식, 『한강유역 신라 石室墓의 受容가 展開』, 『畿甸考古』제5호,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Abstract

## A study of the Daejeon-ri mountain fortress

An, Seong Hyeun · Choi, Kwang Hun

After organization of the excavation investigation result about Yeoncheon Daejeon-ri mountain fortress, this study is considered the construct method and the excavated relics of mountain fortresses made by stones, and the excavated relics of ancient tomb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As a result, Daejeon-ri mountain fortress was built in the middle or late of 6<sup>th</sup>C, and, after the occupation, Silla and Goguryeo got through to a basin of Imjingang River and Hantangang River. And when considering the earliest relics found in the fortresses and ancient tombs are applicable to the middle and the late 6<sup>th</sup>C, they were built intensively during a short time. However, taking account of the relics in this period are excavated small amount in each fortresses, the occupied territory was ruled over not a stable govern but privoted on a iodgement area.

To analyzing the hard tiles, excavated in a rod tamoing layer of a water catchment facilities inside of Horogoru, and the charcoal atratum in the outside of fortress of Mudeungri 2<sup>nd</sup> fort. not only brush fires passed off along the boundary line, but also various occupation forms are existed.

Key Words : Daejeon-ri mountain fortress, Silla, Goguryeo, north-western demarcation of Silla, Hantangang River, Imjingang River, Horogoru, Mudeungri 2<sup>nd</sup> fort.